

대총회

안수 신학

입장 요약 #2

연구 위원회 보고서

2014년 6월



SEVENTH-DAY
ADVENTIST
CHURCH

소개 및 지침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는 2010년 대총회 회기에서 한 대의원이 의원석에서 요청한 결과이다. 이후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이 요청을 2011년 9월 20일에 안수 신학 연구 과정 승인을 위해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안수 신학 연구 위원회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조 약관을 따라야 한다.

안수 신학 연구 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위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연구 위원회'이므로 일반적인 '투표' 절차를 통해 서로의 입장이나 대표를 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이 연구방식은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에 대해 하나의 합의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는 열렬한 기도회, 성서 연구, 예언의 신 연구, 결과로 얻은 신중한 토론을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메시지와 사명, 연합을 뒷받침하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는 안수 신학 연구 과정에서 지회의 기존 성경연구위원회(BRC)와 협력하고 검토할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BRC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는 지회의 BRC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할 연구 논문과 발표를 위원회 회원 및 비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는 약 4번의 회의를 거쳐 2014년 6월에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이 과정을 감독할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임무는 2014년 6월에 대총회 행정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배정된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2014년 연차 총회 연례회의에서 검토 및 논의될 수 있도록 총회 실행위원회에 전체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다. 2014년 연례회의는 2015년 대총회에 회부할 안건을 결정할 것이다.

위원들

스텔레, 아서 A., 의장

음브와나, 제프리 G., 부의장

포터, 카렌 J., 서기

트림, 웬디, 기록 서기

아라이스, 조나스

아라이스, 라켈 C.

배첼러, 더그

바우어, 스티븐

비어슬리-하디, 리사 M

비쇼프, 프레드

보어, 스티븐

브라운, 지나 S.

브런트, 존

세발로스, 마리오 E.

장, 셸리

클라크, 체스터 V. III

코스타, 로버트

담스티그트, 로렐

담스티그트, P. 제라드

데이비슨, 조 앤 M.

데이비슨, 리처드 M.

드 소사, 엘리야스 B.

디옘, A. 가노우네

돈코르, 콰베나

도스, 세릴

파갈, 윌리엄 A.

핀리, 마크 A.

포턴, 데니스

고타드, 도리스 M.

할로비아-발렌타인, 켄드라

하셀, 마이클

홈즈, C. 레이몬드

하워드, 제임스

헉스, 윌리

얀키에비츠, 다리우스

켄트, 앤서니 R.

킹, 그레고리 A.

노트, 에스더

노트, 윌리엄 M.

코, 린다 메이 린

쿤타라프, 캐슬린 K. H

매킨토시, 돈

맥레넌, 패티

밀러, 니콜라스

밀스, 필립

문, 제리

모리스, 데릭 J.

물러, 에케하르트 F. R.

넬슨, 드와이트 K.

닉스, 제임스 R.

오버그, 크리스

페이지, 자넷

페이지, 제리 N.

폴슨, 케빈

피터스, 존

관들, 게르하르트

푸아리에, 티모시 L.

프레윗, 유진

프로핏, 캐서린 L.

래퍼티, 제임스

리드, 데이빗 C.

리브, 테레사

리드, 조지

로버츠, 랜달 L.

로드리게스, 엔젤 M

스카로네, 다니엘

실마, 산드라

슬리커스, 돌로레스

스몰, 헤더 던 K.

소르케, 잉고

팀, 알베르토 R.

트림, 데이비드

투치, 신디

벨로스, 마리오

빈 크로스, 타라

왈렌, 클린트 L.

워드, 이반 리

자르스카, 캐롤

각 시회에 배성된 두 명의 대표

코랄리, 알랭	중동 아프리카 지회
마테마, 삭개오	
비아기, 길레르모 E.	유로-아시아 지회
자이체프, 유진	
헨리, 엘리	중미 지회
페레즈, 카르멘	
하셀, 프랭크	인터 유럽 지회
마조로시, 마나	
비츠, 고든	북미 지회
폴라드, 레슬리 N.	
도현석 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히가시데, 카즈미	
슈미드 파딜라, 킬리안	남미 지회
시케이라, 레이날도	
무스보스비, 조엘	남 아프리카-인도양 지회
라사라, 폴 S.	
크리스토, 고든 E.	남아시아 지회
틀라우, 차우딘푸이	
가요바, 프란시스코	남아시아-태평양 지회
사부인, 리처드	
올리버, 배리 D.	남태평양 지회
로엔펠트, 레이	
바나, 얀	트랜스-유럽 지회
위키클랜더, 버틸 A.	
베디아코, 다니엘 K.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
응오마, 샘슨	

직권 대표

월슨, 테드 N. C., 의장

응, G. T., 총무

레몬, 로버트 E., 재무

안수 신학 연구 운영 위원회

스텔레, 아서 A., 의장

음브와나, 제프리 G., 부의장

포터, 카렌 J., 서기

담스티그트, P. 제라드

데이비슨, 리처드

과갈, 윌리엄 A.

로드리게스, 엔젤 M.

입장 요약 #2

요약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분의 본성 자체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봉사에서 그 본성을 드러내는 사랑에 기초해 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은 지적인 피조물에게 자질과 능력을 주셨고, 그들의 계발과 사랑의 봉사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이 부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발달에 있어 전단적(專斷的)인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 그들에게는 영원을 통해 수행해야 할 특정한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외의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임의로 제한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성별이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놓이지 않았다. 하와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수하에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오로지 타락 이후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은 주로 남성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관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법이 되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된 적이 결코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성과 여성이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동등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사시대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남녀 선지자들(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영적 지도자)과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한 여성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리더십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

신약 성경에서는 남성 리더십의 일반적인 패턴이 계속되지만 여성의 리더십도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이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리더십의 직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는 성별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집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가진 여성들이 집사로 임명되고 안수를 받았다. 남녀 신자들은 그들이 적절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한 장로와 집사의 기능을 할 수 있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였다. 신약성경에 여성 장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 장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매우 유사하며 신약성경에 여성

집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교회가 여성 안수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엘렌 지 화잇은 여성 안수를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긍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의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이 그러한 직책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격려했다.

성경의 증거는 분명하다. 여성을 복음 사역에 안수하는 것은 영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높은 소명을 인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곧 모든 교리의 표준과 모든 개혁의 기초인 성경만을 지킬 한 백성을 지상에 두실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¹ 이것은 성경 전체와 믿음과 실천의 의심할 바 없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전적인 헌신을 촉구한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렇고, 여성의 복음 사역 안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더욱 그렇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품,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해석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안수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는가?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해석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성 안수의 가능성을 부정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성서 해석학

성경이 여성 안수를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해석학적 문제를 간단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재림교인들은 같은 주제에 대해 같은 성경을 사용했음에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해석학)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1986 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대총회 연례회의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는 성서 해석학 방법론에 관한 한 문서를 채택했다: "성서 연구의 방법들: 가정(假定)들, 원칙들, 그리고 방법들"² (MBS). 해석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과 평가의 과정도 다룬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건전한 해석학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특정 본문에 적용하는 것이 주석이다.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것이 주해이다.

적절한 방법의 사용

서로 다른 본문을 함께 묶어 그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성령께서 의도하신 대로 진리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리우 문서에 따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적절한 도구로서 성경 해석의 역사적-문법적 방법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초자연적 기원과 메시지를 훼손하는 방법론을 거부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고 순종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함에 있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언어의 연구: 문법과 문맥

리우 문서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성경 연구의 믿을만한 방법을 따르기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경 본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한다. 고고학, 인류학, 역사는 본문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³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성경의 원어들을 문법과 구문론, 구절의 문맥, 책들의 문학적 장르, 그리고 엘렌 지 화잇의 안내에 따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구절의 문맥이란 해당 책과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앞 구절이 문맥이다. 어떤 구절의 의미는 독자에게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많은 구절의 경우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어, 문법적 구조, 문학적 구조, 그리고 문맥적 배경 등을 연구해야 한다.

신학적 초점

리우 문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학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접근을 암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 가족에게 계시하려는 실제적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진술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진술이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사고 패턴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지만 성경 전체의

영적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과 진술, 예를 들어 알코올 사용, 일부다처제, 이혼, 노예제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뿌리 깊은 사회적 관습에 대한 정죄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왕]들의 삶에서 허용하고 참아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지하거나 승인하신 것은 아니다.... 성경의 정신은 회복의 정신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힘있게 드러내는 성경적, 영적, 신학적 원칙들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믿음직한 재림교회 성경 해석학의 일부이다. 이러한 신학적 접근방식은 구원의 역사 이야기이다. 즉 하나님의 이상적 창조에서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땅에서 하나님의 원래 이상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이야기이다. 재림교회는 창조-타락-재창조라는 독특한 신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창조는 재림교회 가르침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학적 원칙이며, 우리가 가르치는 신학적 틀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우주의 쟁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금주, 채식주의, 일부다처제 및 노예제 거부와 같은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해석학은 우리의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제칠일 안식일(창조) 그리고 예수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재창조)이다. 구속의 전체 이야기가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와 재창조에 기초한 이 독특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큰 그림, 성경의 통일성, 성경 자료 전체의 궁극적 의도(정경적 접근법)를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당신의 아들과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기록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적 신학 원리의 사용

이와 같이 건전한 해석학적 원리는 성경 본문에 대한 균형 잡히고 성경적으로 정통한 이해를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성경 자체의 더 큰 문맥에서 성경적 원칙들을 찾아 적용하는 대신 성경 본문을 단순히 인용만 하는 방식으로 성경 진리를 설명하려 한다면, 재림교인들은 흡연이나 마약 사용에 반대하거나 채식을 장려하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적 원칙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의 뿌리를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학은 동성애적 라이프스타일을 반대하는 재림교회의 입장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창조의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변하지 않으며, 모든 시대에 유효한 것이다(창 1:26-28; 2:22-24; 레 18:22; 20:13; 롬 1:26, 27 참조). 또한 창조부터 타락, 재창조에 이르기까지의 패턴에 따라 구축된 성경의 궤적과도 일치한다.

본문, 신학, 그리고 안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안수를 명령하는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없다. 하지만, 그 안수에 방해가 되는 성경적 장애물도 없다. 오히려 성경 본문과 성경적-신학적 분석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여성들을 모든 사역 직책에 완전히 포함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성 안수 논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명시적인 명령이 없는 경우, 우리는 남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것의 신학적 강조점에 유의해야만 건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성서에서 강조하는 안수는 주로 교회 질서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질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삼위 하나님이 가지는 통일성의 신비는 우리에게 불가해한 신비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삼위일체 간의 관계는 그 사랑의 끊임없는 표현이자 유출이라는 것을 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침묵해야 한다.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특징짓는 요소이며 창조물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피조물의 반사일 뿐이다.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며, 지적 존재의 행복은 그 정부의 위대한 의의 원칙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의 성품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사랑의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하신다."⁵

이 인용문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이다. 둘째, 지적인 피조물의 안녕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 달려 있다. 하나님 자신이 질서의 중심이시다. 셋째, 지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김에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들에게 멋대로 부과되는 것은 없지만, 반대로 사람은 자유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는 오로지 자발적인 봉사만을 기대하신다.⁶

이 섬김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로 묶으신다. 천사들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의 법칙이다. 엘렌 지 화잇은 천사들 중에서 리더십의 자리는 봉사에 기초하여 주어졌다고 말한다.⁷

우리는 천사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천사들은 새로운 봉사의 기회가 없이 특정한 책임만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⁸ 직책은 봉사를 기반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새로운 천사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봉사 역할을 왜 부여하셨는지를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그랬다. 천사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천사들에게 새로운 영예를 부여한 결과로 그 기능이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정한 역할에 국한되지 않았다. 각 지적 피조물은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스스로 없이 계발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미리 정해지거나 자의적인 제한이 없었다(예를 들어, 누가 먼저 창조되었는가; 확실한 것은 성별에 기초해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하나님, 여인들, 남자들

이제 해석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구약성경부터 시작하여 성경에서 여성의 역할을 연구해 볼 것이다. 이는 여성 직임을 위해 안수하거나 안수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시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

우리가 창조 시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놓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하 아담, '인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⁹.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둘 다 축복을 받았으며, 둘 다 출산의 책임을 똑같이 공유하며, 둘 다 땅을 정복하고 동물의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창 1:26-28). 그들의 본성은 동일하며 하나님 밑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는 성적(생물학적) 및 기타 차이점을 의미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고 구별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머지 창조물을 함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구절들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계급적 구조가 없음을 강력하고도 명확하게 암시한다.

아담의 우선 순위.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에 대한 권위를 가졌음을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그렇지 않다(예: 동물이

아담보다 먼저 창조됨). 오히려 창세기 2 장의 전체 기록은 그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자의 창조가 처음에 창조된 남자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여자의 창조는 2 장의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다. 본문은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이동한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2 장의 아담은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남자 아담이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 창세기 2 장의 “아담”은 창세기 1 장의 “하 아담”[그 아담]이다. 이것이 바로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맥상의 의미이다.

아담과 율법. 창세기 2 장 16, 17 절을 읽으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와에게 알려주기를 기대하셨다는 인상을 준다(즉, 그가 하와의 선생이었다). 첫째, 에덴동산의 교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우리가 오로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들의 교사였다는 것이다.¹⁰ 둘째,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이다.¹¹ 셋째,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¹²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 사람에게 동산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는 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¹³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셨다.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그들의 평등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동안 그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미학적으로 여자를 창조하기로 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머리카락이 아닌 옆구리에서 창조되었다. 이는 그녀가 "동등한 존재로서 그의 곁에 서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¹⁴ (창 2:21, 22). 창세기 2 장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상대적 역할 또는 기능적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고 있다: 하와는 아담의 조력자('에제르 케네그도, 창 2:18)가 되어야 했다. 원어에서 '도우미'로 번역되는 '에제르'는 영어의 '도우미'가 흔히 의미하는 것처럼 종속적인 조력자나 보조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이 관계적 용어는(출 18:4; 신 33:7, 26; 시 33:20; 70:4; 115:9-11) 성경에서 단순히 상호부조(相互扶助)의 관계를 가리킨다. 케네그도는 문자 그대로 "그의 상대와 같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 장의 '에제르 케네그도'는 본질과 기능 모두에서 동등한 "파트너"(창 2:18, 22, NEB)로서 돕는 자라는 의미이다. 엘렌 지 화잇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다. 거룩한 한 쌍은 서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했지만, 각자는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¹⁵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독특한 행위, 곧 그 안에서 분리와 재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첫 사회적 관계는 하와가 아닌 창조주와의 관계였다. 하와에게도 같은 특권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했다. 하와의 첫 번째 관계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와 서로 그리고 창조주와 연합하는 놀라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들의 경우에는 분리에 이어 재결합이 뒤따른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어 아담에게로 이끌려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방식과는 다르다. 다른 피조물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왜냐하면 급진적으로 다른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었다(창 1:4, 7, 9, 2:7). "~로부터"와 "~에게"라는 용어는 아담과 하와의 동등성과 성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전 11:8, 9). 하와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아담에게 축복이 되어야 했다.

여자의 이름 짓기. 아담은 창조주로부터 여자를 받았을 때 이렇게 외친다: "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니, 남자[이스]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이사]라 칭하리라."(2:23). 여기서 사용된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담은 하와가 이제 자신의 권위 아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내 뼈 중의 뼈")에 해당하는 동반자를 얻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분별력을 의미한다. 즉 아담은 하와의 참 신분을 분별한다(창 16:13 참조). 또한 창세기 2장 23절에는 두 개의 "신적 수동태"가 사용된다. 첫째는, "무엇으로부터 취하였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여자로 칭하리라"는 말은 창조 후 하나님께서 그녀를 "여자"로 부르셨음을 나타낸다("이 사람은 [주에 의해서] 여자로 칭함을 받았다").

결혼. 아담과 하와의 동등성은 결혼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바사르 에하드)을 이룰지로다"(2:24).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미래의 모든 결혼 관계의 패턴으로 지지되고 있다. 족장 사회에서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 "떨어지지 않다/동반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한 쪽이 다른 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결혼 언약의 맥락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바사르 에하드)이 된다. 이 표현은 남편의 전인격과 아내의 전인격이 제반 관계에서 하나되고 친밀해짐, 즉, 모든 것에서 피차 조화되고 연합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 마찬가지로 타락 이전의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 제시되며, 본질상의 다름이나 기능적인 위계가 있었다는 아무런 힌트도 없다.

타락 이후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일어났다. "그[너의 남편]가 너를 다스릴[마살] 것이다"(창 3:16). "너를 다스릴 것이다"(마살)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다"(라다)라는 의미(창 1:28)와는 다른 위로, 보호, 돌봄, 사랑을 의미하는 리더십의 역할을 가리킨다. 타락 이후에 있는 아담의 사랑의 리더십과 하와의 복종은 결혼의 연합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계는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죄는 불화를 가져왔고, 이제 한 쪽이나 다른 쪽의 복종을 통해서만 그들의 결합을 유지하고 조화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6 절의 사랑의 리더십(마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속되거나 남성이 여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요약하면, 창세기 3장에는 모든 사역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없다. 이 직임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은 여성들. 성경에는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리더십과 사역의 은사를 발휘한 여성의 사례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이자 형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미리암(미 6:4)과 홀다(왕하 22:14-20, 대하 34:22-28)가 있다. 하지만 특별히 생각해 볼 인물은 드보라 이다. 사사기에서 드보라는 남성 장군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군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남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정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하는 재판관으로 묘사된다. 드보라를 일시적으로 사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선지자로만 간주하는 것은 실수이다. 구약성경에서 재판관과 선지자로 불린 선지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역할은 모세(출 18:16)와 사무엘(삼상 7:6, 15-17)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시 드보라가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음을 암시한다. 왕정 이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삿 2:11-19), 사법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기의 순간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¹⁷ 이것이 사사시대 사사들의 일이었다(2:16). 주님의 인도를 받은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재판관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졌다. 그녀의 리더십 역할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락이 주저하며 그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주기를 원하자, 그녀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에 어긋나고 문화적으로도 바락에게 손상을 입히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바락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셨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성별에 따라 인간을 임의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고 싶으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곳에서 따랐던 남성 리더십의 일반적인 패턴이나 관행이 하나님만을 위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상일 것이다. 그 이상이란 남성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상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제정하신 것이다.

신약성경의 하나님, 여성, 남성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인간을 일관되게 사랑하고 돌보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린다.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남성 리더십의 일반적인 패턴은 구약성경에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약 성경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사역의 본질, 성령의 은사,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자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남편과 아내: 지도적 지위

신약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서신서에서 "복종하다"라는 뜻의 헬라어(*히포타소*, 고전 14:34, 엡 5:21, 24, 골 3:18, 딤후 2:5, 벧전 3:1, 5)가 남자/여자(*아네르/키네*) 관계의 맥락에서 7 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단어가 "남자/여자" 또는 "남편/아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 *아네르/키네*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각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이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니라 일관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드러낸다.

에베소서 5:21-33.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신약의 기본 구절이다. 이 쟁점에서 이 구절은 '머리'(*케팔레*)와 '복종'(*히포타소*)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된 유일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언급(23 절)은 같은 구절에 설명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바울 시대에 머리(*케팔레*)를 뜻하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라 몸의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엡 4:15, 16; 골 2:19). 남편은 교회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25, 28 절).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복종의 궁극적인 형태이다.

창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울의 권고를 일반적인 남녀 관계로 확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도 가정이므로 가정에서 남성의 머리 직분을 교회에서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자신이 결혼 관계가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정에서의 *남편의 머리 됄*은 교회에서의 *남성의 머리 됄*과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유일한 남편/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남성을 포함한 모든 교회는 그분께 똑같이 복종하는 그분의 '신부'이다(엡 5:21~23).

고린도전서 11:2-16. 에베소서 5:23 을 제외하고, 남녀 관계의 맥락에서 *케팔레* "머리"를 사용하는 유일한 신약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1:3 이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5:21-33 과 주제적, 용어적으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머리 됄에 복종하는 아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많은 주장이 고린도전서 11 장의 바울의 권고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리더십과 권위, 안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구절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모임에서 인도할 때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문의 주요 주제. 실제로 이 구절에서 바울의 권고는 복음 사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다룬 그의 다른 서신들의 구절들과 조화를 이룬다. 고린도전서 11:4, 5 에서 바울은 이 구절의 주요 주제를 밝힌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 모두는 기도와 예언(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을 상담하고 가르치는 것. 참조. 고전 14:1-5, 29-33)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리더십을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용어로 설명하며,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나 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문화적 관행. 여러 세대에 걸쳐 재림교인들은 이 지시를 예배 중에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남성은 가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지침으로 간주되어 왔다. 교회의 이러한 인식은 성경의 권고를 제쳐둔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이다. 즉 본문에 드러난 근본적인 문화적 관심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4~6 절에서 머리 덮개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심사는 머리에 명예보다는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실제로 명예에 대한 관심사는 7-

9 절에서 더욱 발전되어 바울은 여자를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결론 구절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합당하고"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인식에 호소한다(13~16 절). 여성이 머리를 깎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바울의 가르침(6 절)은 그 당시의 그레코-로망 사회에서 명예에 부여된 높은 가치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이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삭발한 여성은 간음한 사람이나 매춘부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고,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공공장소에서 말을 거는 여성은 유혹하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머리"(케팔레)라는 용어의 사용. 바울은 3 절에서 머리 덮개에 관한 논증을 그림을 보는 듯한 생생한 단어, 즉 은유를 사용하여 그의 논증을 시작한다. 공적인 교회 환경에서 남녀의 "적절"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 명예/수치 라는 문화를 이용해 말하고 있다. 그는 신체적 머리가 은유적 머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신자 개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머리'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따라서 머리 가리개의 착용에 관한 남성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선택이 명예에 영향을 끼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명예에 의해 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머리 가리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편/"머리",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머리" 되신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머리(케팔레)라는 단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몸과 관련하여 육체적 머리의 위치와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단어에는 탁월함, 전체의 대표, 그리고 최초 또는 근원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담이 최초의 피조물이자 실제로 여자의 창조 근원이라는 은유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 9 절). 이 용법은 3 절과 함께 완전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최고의 의미를 갖는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째 또는 근원이다(롬 4:8, 엡 4:13 에서와 같이 모든 인류를 망라한다). 남자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의 관계에서 첫째 또는 근원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메시아)와의 관계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그를 보내신 첫째 또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와의 관계. 7~9 절에서 바울은 '머리' 비유를 바탕으로 창세기 1~3 장에 나오는 몇 가지 이유를 덧붙여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필요를 채우고 그의 영광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추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울은 창세기 2 장으로 가서 그것을 탁월하게 읽어낸다. 그는 창세기에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된 것이지, 남자가 여자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바울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명예/영광을 더해주었다. 여자는 남자의 유익을 위해 창조된 것이지 남자가 여자의 유익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바울과 창세기에서 이것은 성 차별의 바로 그 근거이다. 바울은 이 논리를 사용하여 여성이 예배에 참여할 때 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할 때 머리카락이 그녀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도 우월감을 피할 수 있다(15 절).

1 세기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광', 특히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드러내어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문화적 환경에서는 이것은 특별히 중요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 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 바울은 10 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한 후, 11-12 절에서 그의 논증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즉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첫째로,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남자를 낳은 것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11:2-16 은 옷차림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신명기 22:5 와 조화되는 것으로서 아내가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구절은 여성들이 리더십의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보편적인 우월성에 관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창세기 1~3 장에서 이전에는 결코 주목하지 않았거나 표현하지 않았던 원칙을 (대조하기 위해) 소리 내어 읽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아내는 남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또 타락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한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창조를 언급한 것이지 남녀 관계의 보편적 표준을 위한 근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문맥상 교회에서 장로가 여자의 머리라는 사상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다.

디모데전서 2:9-14. 이 구절은 여성 안수 논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 하나다. 이 특정 구절은 여성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성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그것의 직접 문맥(디모데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문맥. 디모데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응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디모데에게 잘못된 교리로 복음의 참된 사역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을 반대하라고 촉구한다(1:3). 이들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대신(1:5; 12-16 참조), 선정적인 사상들에 불과한 것들로 구성된 배타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1:3-4; 딤후 1:14; 3:9 참조). 서신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본질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4:1-5; 6:3-10), 그 거짓 가르침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행동 유형을 대조한다. 그런 다음 거짓 교리에 맞서 굳게 서라는 호소로써 서신을 마무리한다(6:20, 21).

또한 거짓 가르침은 여성 신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었다. 거짓 가르침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바울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들에게 보인 그의 지대한 관심에 나타나 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한

여성들의 행동(2:10-15), 과부들(5:5, 6, 10, 11, 14),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5:13, EXB) 여성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바울이 이 여인들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묘사한 사실은 그들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디모데는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1:3, ESV)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명을 바울로부터 받았다. 이 여성들과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들의 욕망(5:11-16)이 거짓 교사들의 독신주의(4:1-3; 5:9, 10)와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핵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적 교리와의 연관성이다.

침묵 속에서 배우고 복종하라. 이 구절의 문맥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여성들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는 대신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에 정통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훌륭한 학생으로서 여성들은 조용히 배워야 한다. 즉 가르치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교사와 기독교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 여성.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거짓 가르침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여성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는 것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의 여인들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하와가 뱀의 매혹적인 말에 속았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거나 속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딤후 2:14, 고후 11:3, 4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2:11).

권위 보유하기. 디모데전서 2 장 12 절에서 "권위를 가지다"로 번역된 동사 *아우셴테인(authentein)*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사의 용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1 세기에 *아우셴테인*을 '권위를 행사하다'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이러한 유형의 권위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권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인 *엑수시아*(예: 롬 9:21, 13:3, 고후 13:10, 살후 3:9)를 통해 표현된다. 대신 그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동사 *아우셴테인*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동사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횡포하거나 통제하는 형태의 권위를 의미한다. 이는 에베소의 문제가 횡포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이 가르치고 있었거나, 또는 아마도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바울은 12 절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금지한 다음, 13 절에서 창조 순서를 언급하며 금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아담과 하와. 바울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딤후 2:13, 14)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설명들이 부과되었다(예: 하와가 아담의 머리 직분을 빼앗았다). 그러나 바울은 창조에서 아담의 우선순위와 하와의 죄의 우선순위를 대조하고 있다. 대조의 목적은 속임수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곧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속지 않았다는 것이다. 속임수는 두 경우 모두 거짓 선생들과 관련이 있다. 만약 여성들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속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의 직접 문맥에서 이 본문에 대한 이런 해석은 고린도전서 11 장 5 절에서 지지를 받는다. 거기서 바울은 교회서의 여성의 기도나 예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곧 이는 큰 소리로 기도나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가르침도 포함한 활동들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바울의 금지는 에베소의 신자들을 괴롭히던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임시 금지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모든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보편적인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성경에 충실하려면, 이 구절은 교회 내의 유사한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상황이란 거짓 가르침의 영향으로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개인들의 행동이 참된 복음의 선포를 훼손할 위험이 있을 때이다(갈 1:7~9). 문맥상 이 구절은 여성의 성직 안수나, 교회 장로가 여성의 머리가 된다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

예수님과 기독교 사역.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희생을 통해 드러났고 확립되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5). 섬김의 봉사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봉사에 대한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죽음에서 드러났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으신 그분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5-8). *그분이 높이 되신 것은 타인을 위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섬김에 있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2, 43).

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신학의 기초는 권력 투쟁, 계급, 지위, 성별이 아니라 섬김, 자기 희생, 겸손이다. *예수님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우주 왕국을 다스리던 신성한 질서의 원리, 즉 타인을 위한 섬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다시 세우고 계셨다.* 그 후 리더십의 지위는 창조나 성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섬김의 삶에 근거하여 부여되었다. 예수님은 성별에 근거하여 여성의 봉사가 항상 남성의

봉사보다 열등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봉사에 기초하여 리더십이 모두에게 부여된다고 말씀하신다.

교회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약의 필자들은 모든 사역을 봉사(*디아코니아*)로 이해했다. 그들은 이 용어를 모든 신자들의 봉사에 적용했다. 곧 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다(롬 16:1; 빌 2:5-7; 골 1:7; 벧전 4:10).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과 여성 동역자를 포함한 동료들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다(롬 16:3, 살전 3:2). 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디아코노스*)이자 종들(*둘로스*)이었다(골 1:7, 4:7, 12, 엡 6:21).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종류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위와는 다르다. 모든 기독교 사역의 목적은 "다스리는" 또는 "권세를 부리는"(막 10:42) 측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엡 4:12, NIV),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가능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권위를 행사하는 성경적 원칙은 모든 인간 문화와 어떤 식으로든 부딪친다.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겸손한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마 20:24-28, 벧전 5:1-4).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에서 사역은 봉사로 여기며, 따라서 그런 사역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모든 사람의 소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향해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후 5:20, 벧전 4:10).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사역(목회자)과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사역자 또는 종이며 성령의 뜻에 따라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성령의 선물

남녀를 위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 질서에 기초하여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남녀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로써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각 신자가 당신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분은 신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힘을 북돋우신다. 그 목적은 기독교 공동체를 함양하고 섬겨 선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롬 12:6-9, 고전 12:6-11, 엡 4:7, 11-13). 신자들은 피차 간에 또 세상에 사랑의 봉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마 22:37-39, 28:18-20).

은사는 남녀 모두에게. 영적 은사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향상시키고 세상을 향한 선교 및 사역을 위해 몇 가지 은사를 받는다.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남녀)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최고의 은사"(고전 12:7, 11, 31)를 사모하도록 격려를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안녕과 선교를 위해 특별하고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모든 기독교 사역을 시작하고 승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부름 받은 특별 사역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권함을 받는다. 요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과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재적용을 바탕으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리더십, 예언, 전도, 목회 사역, 교육 등의 은사를 포함하여 모든 영적 은사가 성별을 포괄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단언한다.

교인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각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은사는 교회에서 신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교권주의(즉,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를 가진다는 생각)는 그 형태가 어떻든 신약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다(고전 12:22~25). 대신, 모든 신자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 아래 각자의 영적 은사에 따라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행 1:6-8, 고전 12:4, 11). 은사의 분배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인종, 사회적 계급 또는 성별에 따라 이러한 은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전 12:11).

결론적으로, 기독교 사역은 성별을 포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봉사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삶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직책들이 주어진다. 재림교인들은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사역을 제공한다"(기본 신념, 17)고 믿는다. 그러나 "만인사제직"과 모든 신자의 영적 은사는 교회가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구조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배제하지 않는다(행 15:1-15; 고전 14:33, 40). 이런 연유로 신약성경에서도 특화된 리더십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은사들과 직분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과 성경의 인도에 따라 교회가 스스로 조직하고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도록 허락하셨다.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으로 받은 영적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끌도록 당신의 추종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한다(롬 12:8; 엡 4:7, 11). 모든 사역의 경우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역에 적합한 자격을 부여하시고,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 구약의 지도자들은 레위인(민 8:5-26), 아론과 그의 아들들(출 28, 29 장), 70 명의 장로(민 11:10-25), 여호수아,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다.

구약 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누군가에게 어떤 직분이나 직무를 임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어떤 경우든, 모든 형태의 사역에 대한 소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기독교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마 10:10, 고전 9:3-14, 딤후전 5:17, 18).

열 두 사도.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 사도들은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막 3:13~19, 눅 6:12~16) 중에서도 이 열 두 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마 10:1~4, 막 3:13~19, 눅 6:12~16). 주님은 그들을 사역의 증인으로 선택하셨고(행 1:21, 22),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증언, 곧 복음을 충실히 선포하고 해석하는 사역을 맡기셨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하신 이후에(행 2:1-4; 막 3:13, 14; 마 28:18-20), 그리고 이들에게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도록 위임하셨다(참조: 마 16:19, 18:18).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증인으로서 사도들은 교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바울이 말했듯이, 사도들은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이다(엡 2:20).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에서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열 두 제자의 임명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사역의 시작으로 간주된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인 맛디아를 그들 중에서 선택했다. 이 임명 역시 기도의 정신으로 이루어졌으며, 맛디아와 요셉 바라바 사이에 제비뽑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다(행 1:15-26). 신약에서 '사도'라는 용어는 의견상의 선교사들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예: 행 14:14, 고전 4:6, 9, 살전 1:1, 2:6).

특화된 은사들. 초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정한 성령의 은사를 부여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특화된 리더십의 대로에서 그들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허용되었다. 사도, 전도자, 목사, 교사(엡 4:11)로 불리는 이들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리더로서 활동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엡 4:12, NIV)도록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임명에 의한 지도자들의 사역의 시작. 교회에서 임명직 사역의 시작은 사도행전 6 장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사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일꾼 사람을 선출하여 매일 음식을 공급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교회에 요청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은 기도와 안수로 안수식을 거쳤는데, 이것은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의식이다(행 6:1-6).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역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다른 사역(예: 선지자들이나 교사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교회가 임명하는 사역의 시작이다.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은 모두 교회를 위한 봉사 또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일곱 집사들은 음식 공제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런 류의 사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곱 집사 중 두 사람, 스테반과 빌립을 사용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6:8-10, 8:5, 36-40, 21:8).

사도행전에는 '집사'(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장로'(프레비테로스)는 여러 번 나온다. 이들은 부조금을 받거나(11:30) 사도들과 함께 리더십 역할을 한다(15:2-4, 22; 21:18).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는데, 이들도 그 교회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선교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다(행 13:1-3). 선교 여행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지역 교회들에서 장로들을 임명했다(행 14:23).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다양한 직분에 임명된 사람들도 있다. 바로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 같은 이들이다(행 21:8-10). 집사와 장로라는 두 가지 직분에 임명된 사역의 첫 증거는 빌립보서 1 장 1 절의 인사말에 분명히 나오지만, 그 명확한 구분은 디모데전서 3 장 1-13 절에 나온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사역의 패턴들이 처음에는 유동적이었지만 이와 같이 확립되었다.

집사들과 장로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사의 직분은 사도행전 6 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의 임명에서 유래되었다.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집사들을 교회의 직임을 수행하는 자로 임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딤후전 3:8~13). 또한 리더십의 은사를 행사한 사람들 중에는 공동체가 선출하고 사도들이 인정한 임명직 지도자들(장로/감독자 및 집사)도 포함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리더십 은사와 그들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여(행 6:3) 영적 감독, 공동체 보호(목양), 가르침, 설교의 임무를 위해 이들을 선택했다(행 20:28, 딤후전 5:17).

은사들과 직분들을 철저히 구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특정 직분에 적합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직분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 중에는 목사를 위한 은사가 있다(포이뮐, 엡 4:11). 이것은 장로/감독자에 사용된 말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었다(벧전 5:1-4, 행 20:17, 28). 장로와 감독자의 기능도 서로 동의어이다(행 20:17, 28; 딤후전 1:5, 7). 가르치는 은사도 장로/감독자의 책임으로 묘사된다(딤후전 2:2, 딤후전 1:9). 이 역할들(목사/교사, 장로/감독)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목사/교사에 대한 영적 은사들은 장로 또는 감독의 임명직과 동일하다. 영적 은사에 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에는 성별이 포괄되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수

안수식을 통해 교회 지도자를 안수하는 현재의 관행은 주로 사도행전 6:1-6 과 13:1-3 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은 안수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나 신학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의식을 교회 지도자 임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외의 많은 기독교 관습과 마찬가지로 안수는 구약과 유대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구약성경의 안수. 구약의 안수식은 다양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축복, 제사의식, 그리고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죽이는 일 등에서 이다(창 48:14, 레 4:4, 24:14).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안수하는 신약의 안수식의 선구자적 사례는 두 가지 뿐이다. (1) 레위인들의 취임식(민 8:10)와 (2) 여호수아의 위임식(민 27:23). 두 경우 모두 히브리어 문구인 '사막 야드(문자적으로 "손을 얹다")'를 사용한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안수식에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참여했으며,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단 한 번만 행해졌다(민 8:10). 다음 세대의 레위인이 안수를 받았다거나 이 행사가 반복되었다는 성경적 증거는 없다. 그것은 독특한 행사였다.

여호수아(민 27:23, 신 34:9)의 취임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의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백성들의 눈에 그는 이제 그들의 목자이자 지도자(민 27:17)였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 그러나 모세의 안수는 상징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것을 의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영적 은사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민 27:18). 안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증이었다. 성령은 리더십에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음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정 시대 이전에는 그 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독특한 행사였다.

신약의 안수.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다양한 상황에서 안수식이 있었다. *에피티세인 타스 케이라스* 그리고 *에피세오스 톤 케이론*(안수, laying on of hand/hands)이라는 두 구절은 20 회 이상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축복, 치유, 침례시에 있는 성령의 임재 등에 사용되었다(예: 마 19:13-15, 막 6:5, 행 8:17, 9:17, 19:6). 신자들을 지도자의 직분에 임명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수 사례는 딱 두 사건 뿐이다. 곧 사도행전 6 장에서 일곱 집사들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사도행전 13:3 에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천거" 했을 때이다(행 14:26).

사도행전 6 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들의 경우, 그들은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 요건("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3 절)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가 선발하였다(3, 5 절). 그들이 사도들 앞에서 있었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6 절).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동체 전체였을 수도 있고, 사도들만 있었을 수도 있다. 교회가 민 8:10("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의 구약 전례를 따랐다면 첫 번째 해석(전체 회중)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의식의 의미. 사도들이든지 아니면 온 회중이 일곱 집사들에게 안수했을 때, 안수한다고 해서 이전에 그들에게 없던 은사가 그 의식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과 지혜로 충만"(행 6:3)했기 때문에 부름 받은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된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의 위임에도 동일한 해석이 타당하다. 이것은 일곱 집사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새로운 책임을 맡았을 때 교회의 전적인 지지와 축복, 보증을 받았음을 의미했으며, 또한 부름 받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신약의 공동체들은 이 의식을 통해 성령의 부르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 공동체들은 일곱 집사들, 바나바, 바울, 그리고 후일의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렇다면 여성 안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가 연구한 안수가 함축하는 바는 무엇일까? 최소한 교회는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회 사역에 적합한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안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은사와 직분 사이에 큰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사는 직분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킨다)은 은사가 성별을 포괄하지만 직분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을 직분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드러낸다.

리더십의 자격들

리더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하지만, 디모데전서 3:1-13 에 기술된 리더십에 대한 많은 자격 요건들은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자격 요건들과 동일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리더십 자격들은 성별에서 배타적이지 않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이 성경의 포괄적 용례 때문에 종종 간과되었다. 많은 언어들과 여러 사회에서 심지어는 현대에도 그렇듯이, 성경에서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성별(보통 남성) 언어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울의 리더십 자격 목록에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임과 사역 봉사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십계명과 그 외의 구약의 율법들(출 20 장, 특히 17 절 참조)을 통하여 순종은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다.

여성 집사. 신약 성경에는 기독교 교회의 두 가지 특정 직분을 언급한다. 바로 장로와 집사이다. 장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책임을 맡았다. 집사의 자격들은 그 성별에 있어서 세부적이지만, 그렇다고 성별이 배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딤후 3:8-10, 12, 13). 신약 성경에는 사도 교회에 여성 집사가 있었다는 증거 또는 적어도 힌트가 있다(딤후 3:11,

롬 16:1). 첫째,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바울은 집사의 "아내"에 대한 자격 목록을 간략하게 삽입한다(딤후전 3:11, NIV). 원어의 독법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위엄이 있고"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성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바울은 로마서 16 장 1 절에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집사[디아코노스]인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면서 여성 집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레코-로만의 서신에서 사용되는 칭찬이라는 공통 요소가 들어 있다.¹⁹ 여기에는 칭찬을 받는 사람의 이름(뵈뵈), 그 사람과의 관계("우리 자매"), 그 사람의 지위/역할("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 그리고 요청("그녀를 영접하여... 무엇이든지 도와주라")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엘렌 지 화잇은 이 구절들이 안수를 통해 그 직분에 임명된 여성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여성들은 병자를 방문하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필품을 돌보는 일을 위해 임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기도와 안수를 통해 이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제직이나 목회자와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유지하는 헌신적인 여성들이라면, 교회에 선한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강화하고 세우는 또 다른 수단이다.²⁰

화잇의 아들인 W. C. White 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여성도 집사 직분에 안수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따라서 그들은 여성들을 집사로 안수하기 시작했다.²¹ 신약성경에서 암시된 것이 엘렌 지 화잇의 예언자 사역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엘렌 지 화잇의 분명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일부 선구자들은 여성들을 집사로 안수하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장로. 장로의 자격의 목록에 사용된 언어는 남성에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성별을 배타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첫째, 바울의 자격 목록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만약 어떤 사람(*티스*)이 감독의 직분(*에피스코페*)을 얻으려 하면"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남자를 지칭하는 *아네르*가 아니다(딤후전 3:1). 그리스어 *티스*는 부정 대명사로서 성별을 정의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대명사를 사용했을 때 그는 성별의 구분보다는 감독자의 직분은 열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천거하고 있다. 이는 사도가 감독자의 직무보다는 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감독자의 품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지를 얻는다. 따라서 바울이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를 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분명한 의미이다. 그리스어로 "장로"라는 명사가 남성적인 것과 같이 *디아코노스*도 남성이다. 따라서 두 용어의 성별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배타적인 성별은 아니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문자대로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문구는 남자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문구가 집사와 장로 모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딤후전 3:1, 12). 이제 여성도 집사 직분을 맡을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 문구가 비록 성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지라도, 여집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별에 있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성별보다는 도덕적 순결에 있다(참조. 5:9). 성전 매춘이 만연한 문화적 맥락에서 바울은 남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사와 장로의 자격으로서 성적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제시한다. 장로와 집사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다시금 이 말씀은 여성들의 자격이 되는 도덕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찍이 바울도 신실한 과부를 명부에 올리려면 "한 남편의 아내" 또는 "한 남자의 여자"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딤후전 5:9, ESV).

셋째, 장로들은 가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여성이 이 직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집사에게도 동일한 자격이 요구되며(3:1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도 집사로 봉사할 수 있다. 여성도 자신의 가정을 잘 관리해야 했다(5:14).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루디아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행 16:15). 이 요건의 주된 목적은 장로와 집사가 좋은 행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장로와 집사의 다른 어떤 자격 요건도 여성을 이러한 역할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 바울은 리더십 사역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관련된 원칙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성별(남성 및 여성)에 따른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자격이 성별에 따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성별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약성경에서 교회에서 장로로 임명된 여성을 찾을 수 없더라도 여성은 집사나 장로의 직분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은 이를 허용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그분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결론

예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직책은 인종, 계급, 문화, 성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중심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인간 관계의 모든 질서 체계를 해체한다. 그 체계들은 인종이나 문화적 기원, 경제적 지위, 그리고 성별에 따라 물려받은 가치 이해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체계들 대신 하나의 가치 체계, 곧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에 기초한 가치 체계로 대체한다. 이전의 관계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대체된다(갈 3:28, 29, 골 3:11). 하나님은 태초에 지상에 세우셨던 것과 동일한 우주 질서를 이 땅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공동체 모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 은사들에는 사역과 리더십의 은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 은사들은 신자들의 유익과 교회의 세계 선교, 집사들과 장로들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롬 12:1-8).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명이 성취될 때 박해 받는 종말 교회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하신다(계 5:10; 참조: 1:6, 20:6, 출 19:5, 6, 벰전 2:9, 10).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포괄적인 제사장 사역의 이 질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특징짓는다(사 61:6 의 성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남녀 구분 없이 남자와 여자를 구원하셨고(계 1:5, 6; 5:9, 10),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선포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으며(14:6-13), 그들이 제사장적 통치자로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20:4-6).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제사장직'은 남은 교회의 특징이다.

엘렌 지 화잇과 여성들의 사역

엘렌 지 화잇은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역에 훈련을 받아 쓰임 받도록 강조하고 또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심지어는 안수를 받아 일부 사역에 쓰임 받도록 권면했다. 그녀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 많은 출판물이 이 주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재림교인들이 더 잘 인식하도록 하였고, 오늘날 여성들은 우리 교회에서 온갖 형태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19 세기의 맥락에서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화잇의 사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은 오늘날 여성 안수의 사례를 뒷받침한다. 화잇의 글에서 얻은 관점은 사역과 안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역의 모든 측면에 여성이 온전히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여성 사역과 여성 안수에 대한 화잇의 관점을 다섯 가지로 가장 간단히 잘 설명할 수 있다.

침묵

엘렌 지 화잇은 여성의 사역을 막는 데 사용된 몇 가지 주요 본문과 개념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화잇의 사역 일화는 150 년 전에는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사회적 또는 종교적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시해준다. 실제로 여성이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때때로 부적절하고 품위 없는 일이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34, 35 또는 디모데전서 2:12 에 나오는 바울의 훈계에 대한 전통적인 독법(讀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임에서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데 화잇은 이 두 주요 본문에 대해 결코 주석을 하지 않았다. 이 본문들에 대한 화잇의 침묵은 오늘날 우리가 여성 사역에 대해 논의할 때 이 본문들이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화잇의 재림교회 남성 동료들은 이 본문들에 대해 아무런 주석을 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을 종종 인용하면서 여성이 대중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 바울의 훈계는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여성 사역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바울의 많은 여성 동역자들을 언급하였다. 가장 명백한 반응들 중의 하나는 1892 년 호주 합회장인 G. C. 테니가 행한 발언이었다.

이 본문들에 대한 장애물은 그 본문들과 관련하여 내린 미성숙한 결론에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 적절치 않은 급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주요 취지와 상반되고 성경의 평범한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성경은 일관된 해석의 선을 벗어나지 않고도 모든 부분에서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발적인 구절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독립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자들이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믿는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본문 외에는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적용한다. 성경 비평가들, 여성 비평가들, 뿐만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변명을 찾고 있는 여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 구절들을 적용한다. 이 본문을 오용함으로써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려던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²²

포용성

엘렌 지 화잇은 봉사와 사역의 모든 측면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1893 년, 일부 남성들이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사역에 봉사하고 이 일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잇은 "이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여성들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역자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것"이다. 그녀는 "복음 사역에 수고해야 할 여성들이 있다"고 강조하였다.²³

1879년, 화잇은 매사추세츠 주 사우스 랭커스터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였다. "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항상 남성들은 아니다. 만약 신실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진심 어린 경건과 진정한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기도와 수고로 마음과 삶에서 헌신하지 않는 남성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이 포괄적인 진술에서 화잇은 여성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역, 곧 교회 경영이 포함된다고 이해했다.

1880년에 화잇은 젊은이들에게 문서전도를 하라고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문서전도는 "남녀들이 목양을 하는 데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20년 후인 1900년, 그녀는 다시 여성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격려했다. "남성들과 여성들을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일, 곧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²⁶ 1887년에, 우리의 학교들에서 재림교회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화잇은 행정자들에게 "어떤 직책이든 책임을 맡을 수 있게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했다.²⁷

화잇은 그녀 당대에 여성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채용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성의 선택권은 제한하지 않았다. 남자가 머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여성의 사역을 결코 제한하지 않았다. 만약 엘렌 화잇이 여성의 사역 선택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젊은 여성들에게 일관되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격려했다.

그렇다면 안수는 어떨까?

다양성

화잇은 안수를 역할의 다양성으로 이해했다. 그녀의 저술들에 나타난 상당한 구절들은 그가 안수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예들이 있다. 엘렌 지 화잇은 안수를 받은 목사들의 사역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 따라서 그녀는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약성경에 나오는 안수를 받은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 외에 비전통적인 역할을 포함하도록 사역의 형태에 대한 교회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심지어 이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옹호했다.

1908년, 화잇은 재림 교회 의료 기관의 선교를 장려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들은 "복음의 사역자가 구별된 것처럼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⁸ 비슷한 맥락에서 1895년에는 지역 교회들의 평신도 사역에 관해 긴 기사를 썼다. 그녀의 권면은 이렇다.

자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병자를 방문하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필품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기도와 안수를 통해 이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제직들이나 목회자와 상의해야 하지만, 헌신적인 여성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에 선한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강화하고 세우는 또 다른 수단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더 넓혀야 한다.*²⁹

여기서 화잇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여성들을 구별하여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고 권면하였다.

이 두 가지 권장안에서 화잇은 안수에 대해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또한 안수를 다양한 기능과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화잇이 옹호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안수 권장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선례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아마도 화잇이 안수를 특정 성별의 기능에만 국한된 성례식의 한 형태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권고에서 이러한 모든 직분은 성별을 포괄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위임

엘렌 지 화잇의 생각에서 안수는 위임과 같다. 이 마지막 두 가지 예들은 안수에 대한 비성례전적 이해를 반영한다. 안수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대한 비준이요 위임의 한 형태이다. 사실, 그녀의 글에서 안수와 위임은 같은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³⁰

1873년 존 테이(John Tay)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입교했고 곧 남태평양에서 선교사로 자원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1886년, 그는 핏케언(Pitcairn) 섬에 상륙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민 전체를 회심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심자들에게 침례를 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10년 후 엘렌 화잇은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핏케언에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러 갔던 테이 형제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사업의 짐을 지고 영혼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안수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안수를 받은 것이다. 그들 외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이] 침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안수 받은 목사가 있다면, 그들은 안수 받은 목사가 침례를 베풀도록 구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과 함께 일하셔서 여기저기서 영혼을 이끌어 내시는데, 이 귀한 영혼들이 침례를 받을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를 때,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지 말고, 이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³¹

평신도가 안수 받은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침례를 집행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 화잇의 가르침은 교육상 유익한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번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안수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 있다. 교회의 안수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수 이전에 영적으로 안수하시고 사역을 위임하신 것에 대한 확인으로 보인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것을 인정할 뿐이다. 실제로 1851년, 화잇이 첫 재림교회 목사들의 안수에 관한 글을 썼을 때, 그녀는 이 의식을 안수가 아닌 위임이라고 불렀다. 45년이 지난 1896년에도 그녀는 안수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 사명

엘렌 지 화잇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한 재림교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교회가 다양한 직분에 안수함으로써 남성들과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이 더욱 다양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적이었고, 모든 재림교회 남성들과 여성들이 사역에 활동적이어야 함을 절절이 통감하였다. 재림교회는 안수 관행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조지 버틀러는 1865년 6월에 아이오와 합회장이 되었지만 1867년 9월에야 안수를 받았다. 우라이아 스미스는 1855년부터 *리뷰 앤드 헤럴드*의 편집자로서, 1863년부터 대총회의 서기로 봉사했다. 그는 1874년에 안수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었고,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수를 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사역의 은사를 인정하는 노정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사역에서 봉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사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확장했다. 왜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될까? 화잇은 여전히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사역의 형태를 확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여성들이 많은 직책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했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여성들이 "어떤 직책이든 맡을 수 있다"고 믿었다.

화잇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와 환경에서 기꺼이 여성들을 격려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고하는 폭넓은 성별 포용적 사역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녀의 지도를 따르려면 안수는 남성 전용 사역의 확립이나 보존이 아니라, 안수는 선교와 복음 전파에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19 세기에 교회가 여성들에게 허용했던 것과 동일한 잣대로 활동과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화잇 메시지의 지속적 유효성을 놓치는 것이다. 화잇은 사역과 선교사명에 대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했다.

우리는 화잇이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남성들이 맡아온 전통적인 역할에서 그들을 대신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들이 복음과 목회 사역의 폭넓은 역할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했다.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책임 있는 지위에 있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리더십, 목회 사역, 그리고 가르침(목사들, 교사들, 장로들, 감독자들 등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직분)의 은사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시키고, 남성들이 같은 직분에 안수를 받는 것처럼 여성들도 이러한 직분을 위해 안수해 줄 것을 교회에 호소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직분 임명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직분과 직무에 임명되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결합한 것이다. 대부분의 임명들은 선정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일을 위원회가 행한다. 이 위원회는 신앙 공동체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은 임명을 결정하거나 추천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행사할 권한은 조직 위원회, 이사회 또는 총회가 임명 결정을 내리는 순간 부여된다. 각 교회 직원회나 합회/연합회의 행정행위위원회에서 직분이나 직무에 임명하기로 결정한 후, 집사들, 장로들, 목사들의 경우처럼 일부 임원은 기도와 안수 의식을 통해 임명되거나 안수를 받는다. 다른 임원들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예: 부서장, 대학 학장이나 총장)의 투표로, 다른 임원들은 신자들의 총회(예: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의 투표로 해당 사역이나 직무에 임명된다. 집사들, 장로들, 그리고 목사들의 안수에서 기도와 손을 얻는 것은 안수식 전에 내린 결정에 대한 확증내지 상징으로써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안수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지위를 부여한다고 믿지 않는다. 안수식은 공동체가 해당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축복의 한 형태이다. 안수를 통해 교회는 남 집사/여 집사, 장로 또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성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방법, 즉 성별에 따라 여성들을 중요한 위치에서 배제하지 않는 방법을 기꺼이 가리켜 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딤후 2:15, NKJV), 성경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성경 외적인 의제나 사회적 트렌드가 성경 본문에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해석 방법에 따라 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한다. 말씀을 주의 깊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약속된 성령의 통찰력의 도움을 받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이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드러내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계 21:5, NKJV) 재창조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선포하는 것이다. 남녀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본질적인 평등과 그들을 설계하신 상호성을 이해한다. 사도 요한의 천국 묵시에서 우리는 구속 받은 자들을 엿본다. 거기에는 계급, 인종, 성별의 구분이 없고,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계 14:4) 그를 경배하고 따라간다.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선교사명은 그분이 기꺼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많이 언급한다. 그분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는 사람의 계층을 구분하지 않으신다(갈 3:28). 남녀 모두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실현하는 사역에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고, 채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신자(요엘 2:28, 29 참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어떤 역할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2:11).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인종, 계급, 문화, 또는 성별의 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세상에서의 그분의 선교사명에 대한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충성심에 비해 이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는 남녀들이 지도자들, 사사들, 증인들, 그리고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례로 가득하다.

여성들과 남성들의 봉사과 사역에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명쾌하다는 것은 하나의 해석적 열쇠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거나 불분명한 구절들을 그것의 역사적 문맥에 맞게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거기에는 신약의 특정 회중들에게

행한 바울의 어떤 권면들도 포함된다(딤후전 3:1-13; 고전 14:26-34 참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이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은사들을 피차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의 의무이다. 손을 얹는 것, 또는 “안수”는 특별한 권능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가치를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에 언제나 존재해야 할 합의를 우아하고 단순하게 나타내는 것이다(마 18:19).

재림교회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봉사하기 위해 남성들과 여성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엘렌 지 화잇은 70여 년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성경적 예언의 은사를 행사했다. 그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촉구했다. 봉사에 대한 그녀의 단호한 초청을 받고 그녀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은 재림교회의 남성들과 여성들은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로서 하나님의 사역 부름에 계속 응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겸손히 확신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인 우리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 또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반면, 진실한 다른 재림신자들이 누구에게 안수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의무를 일깨운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사역에 임하는 여성들의 안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세계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성령께서 용인하지 않은 경우들에 있어, 다수의 결정은 그 결정과 반대로 가르치는 성경을 진심으로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의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참조: 롬 14:5). 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의 일부가 아닌 주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한다(요 17:20-23).

안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만인사제적은 여성들이 목사로 안수 받는 것을 허용하는가?

첫째, 구약에서는 여성들이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지만, 신약의 만인사제에 대한 가르침에는 남성과 여성 신자 모두 포함된다. 레위기의 율법은 이제 지파와 민족적 제한에서 벗어났다. 교회에서 모두가 “제사장들”이지만 모두가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구약 성경에서 십일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었고, 그 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십일조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 교회에서 십일조 법은 성별에 따른 제약이 없다. 이제 엘렌 지 화잇이 지적했듯이 “십일조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1MR 263)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양떼를 위한 목사들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6T 322). 만인사제직은 여성들도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수님은 안수 받은 사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직 위계제를 세우셨는가?

복음서에는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예수께서 교회에서 리더십의 직책을 부여할 때 세우신 구체적인 기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막 10:43)였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 명령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감히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이든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교회에서 권위나 리더십의 지위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성령의 감화 아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참된 종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2-16 의 "머리/머리 됨"은 "근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어 *케팔레*는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출처"를 의미할 수 있다. 한 그리스어 사전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이 그 외의 다른 어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전들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³² 따라서 고린도전서 11:2-16 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 모두 언어학적으로 가능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근원의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8 절, 12 절).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남녀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묘사한다(11 절). 이 구절의 문맥은 교회에서 교회의 남자 장로가 여자의 머리라는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은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 장로들의 지도적 지위(headship) 아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하는가?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엘렌 지 화잇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였다.³³ 남자가 그의 아내의 머리로 묘사되는 것은 가정,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예: 엡 5:22, 23). 이 개념은 교회에서 장로들과 여성들 사이의 관계로 결코 전이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2장 12~14 절은 에베소의 지역 상황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다. 이 구절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육상 유익하다. 바울은 분명히 지역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들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본문의 문맥을 주의 깊이 살핀 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본문의 보편적인 내용이다. 몇 가지 보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는 남녀 모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야 한다. (2) 가르치는 일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학생인 자들은 가르치도록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가르치는 자의 권위나 가르치는 내용을 의심하도록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다.

성경의 리더십이 주로 남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여성들의 성직 안수를 배제하는가?

우리는 이 소논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 남성만이 안수를 받고 최고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구적이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곳도 없다. 남성 리더십의 패턴은 주님께서 직접 일부 여성들을 그분의 백성 중 가장 높은 권위의 직책들(예: 선지자 및 사사)에 임명함으로써 매우 자주 변경되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가시적이고 풍부하다(예: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여선자들, 교회 제직들과 관련하여 여성 집사들 등). 다시 말해, 남성을 지도자들로 두는 일반적인 관행은 주님의 명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주님은 여성들을 사역에 안수할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범들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무시해야 할까?

어떤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결로 성경적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여성들의 안수 여부가 아니라 기본 신조 1 번에 충실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 신조 선언문에 요약된 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을 항상 지지해 온 우리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메시지는 성경 연구와 엘렌 지 화잇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통해 확립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성경과 성령이 교회를 훈육하였기 때문에 투표는 필요하지 않았다. 기본 신조 선언문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사명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묶어 준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성경 연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성직 안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수결로 가결한다면 우리는 기본 신조 1 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 진리는 더 이상 성경에만 근거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는 다수의 의견에 근거하여 정의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진지하게 결론을 내렸을 사람들(양심의 자유?)에게도 다수결의 투표가 강요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특정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나머지 교회를 위해 결정할 교회 교권(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대표자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여성들의 성직 안수 문제는 우리들 중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제(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질문과 같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용인해 왔다. 이 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그 결과 기본 신조의 수준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 이 주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갈 길 #2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높은 소명을 인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리의 표준과 모든 개혁의 기초로서 성경, 오직 성경을 지키기 위해 지상에 한 백성을 두실 것"임(GC 596)을 열렬히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애도 없다는 성경적 확인(창 1, 2 장, 갈 3:26-28, 골 3:11-17, 벰전 2:8-10, 행 10:34)과 우리 선교사명의 촉박함(마 28:18-20, 마 24:14, 계 14:6-12)은 모든 신자들, 곧 남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고 그들의 사역을 적절히 확인하도록 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 1:26~28). 비록 창조의 이상이 죄로 인해 깨졌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이상을 회복하셨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남녀들이 모두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이상이 다음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 (1) 등등성의 회복에 대한 바울의 확인(갈 3 장, 엡 2:14-22, 참조. 계 5:10), (2) 초대 교회의 여성들의 사역 참여(눅 8:1-3, 롬 16:1, 2, 7, 행 18:2, 26), (3)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최근에 채택된 안수에 관한 합의문은 "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개인을 구별하며, 특별한 자격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임명하는 위임 행위"라고 선언한다. 또한 안수는 "사역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것"이다. 안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남집사나 여집사, 장로 또는 목사를 안수할 때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재림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종종 신학적, 교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사이에 차이를 야기하였다. 때때로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아래 한 몸으로 연합해 왔다. "우리는 교회의 일치가 성경의 모든 본문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같은 관용의 정신 외에는 교회의 일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11MR 266).

기본 신조 14 번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에 따르면, "인종, 문화, 학문, 국적, 빈부, 그리고 남녀의 차이로 인해 우리 사이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며, 한 성령으로 우리를 그분과 그리고 서로를 하나의 교제로 묶어 주셨다. 우리는 편견이나 주저함 없이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 이 기본 신조에 기초하여, 대총회는 여성의 리더십 역할을 인정하는 고용 관행을 포함하여 교회 내 책임을 규정하는 정책을 수립했다(GC 근무 정책 BA-60 참조). 이러한 정책은 성령께서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를 봉사로 부르시고 모든 영적 은사는 성별을 포괄한다는 영적 은사 교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반영한다(고전 12:11, 요엘 2:28, 29, 사도행전 2:17-21). 교회는 여집사들의 안수와 여성 장로드의 안수, 그리고 여성 목사들의 위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교회 정책과 관행은 전 세계에서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교회는 선교와 메시지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통일된 전 세계 조직으로 남아 있다.

성경과 엘렌 지 화잇의 권고에 따라, 교회는 교회가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관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여성들의 안수 시행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어떤 단체도 해당 선거구의 뜻에 반하여 여성 안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신실함과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증거하라는 성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든 지역에서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경우 불화와 분열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목회자 청빙을 담당하는 각 단체(교회)는 오직 남성 안수 목사만을 임명하거나 안수 받은 남녀 안수 목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선택은 각 연합회, 지회 및 대총회의 관련 문서에 보장되어 보호되며, 어떤 단체도 그것의 의지에 반하여 선거구의 집단적 양심이 가리키는 것 이외의 입장을 채택하도록 지시 받을 수 없다.]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안수를 위한 조직 차원의 결정이 역사적으로 연합회에서 이뤄졌고, 지회에 의해 연합회는 남성들과 여성들의 복음 사역 안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맡기신 대사명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섹션 VII

승인과 헌신을 위한 투표

여성들의 안수 주제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28 기본신조를 통해 표현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메시지와 선교사명에 헌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결의했다.**

¹ GC 596

² 이 문서는 1987년 1월 22일자 *재림교 리뷰*에 게재되었으며, <https://adventistbiblicalresearch.org/> 자료/성경-해석학/방법-성경-연구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출판물을 조지 E. 리드, 편집자, *성경의 이해*에서 사용할 것이다: *재림론적 접근* (실버 스프링, 메릴랜드: 성서 연구소, 2005), 329-337.

³ MBS, 333.

⁴ 위의 책, 335-336 쪽.

⁵ PP 34.

⁶ Ed 103 을 참조하라.

⁷ SpTED 57.

⁸ 예를 들어, 가브리엘은 그룹 천사가 아니었지만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 엘렌 화잇은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아들 다음으로 영예롭게 서 있는 천사"(DA 99, 234 참조)로 묘사한다. 이것은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의 루시퍼의 지위였다(참조: 4BC 1162; Conf 9; GC 495; 4BC 1143).

⁹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성경 인용문은 새 미국 표준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발췌한 것이다.

¹⁰ Ed 20; PP 50.

¹¹ Cf. Youth Instructor, 1902년 2월 27일, par. 1.

¹² ST, 1894년 10월 8일, pars. 2, 3.

¹³ Ibid., par. 1.

¹⁴ PP 47.

¹⁵ 3T 484, 강조 추가. PP 58 참조: "창조시에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엘렌 화잇이 존재론적 평등뿐만 아니라 위계가 없는 기능적(역할) 평등을 암시하는 것은 다음의 문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는 타락 이후에 가서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소개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 왔고, 이제 그들의 연합은 한쪽 또는 다른 쪽의 복종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조화가 유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타락 이전에는 머리/복종과 관련된 역할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¹⁶ PP 58(강조 표시 추가).

¹⁷ 엘렌 화잇은 이렇게 기록한다: "이스라엘에 한 경건함으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주님은 그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ST, 1881년 6월 16일자 4면).

¹⁸ 린다 L. 벨빌, "가르침과 권위 찬탈: 디모데전서 2:11-15," *성경적 평등 발견, 216: 위계 없는 상호 보완성* (Ronald W. Pierce, Rebecca M. Groothuis 역, 다우너스 그로브, 일리노이주: InterVarsity, 2004), 216.

¹⁹ 로버트 주엣과 로이 데이비드 코탄스키, *로마서* 참조: *주석* (헤르메니아-성경에 대한 비평적이고 역사적인 주석, 미네아폴리스, Min: Fortress Press, 2006), 941-942.

²⁰ RH, 1895년 7월 9일.

21 "엘렌 화잇의 호주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집사로 안수를 받았다. 1895년 8월 10일, 시드니 애쉬필드 교회의 천거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보고서는 승인되었다. 그 날짜의 서기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선거 직후, 앞으로 호명된 임원들인 코리스 목사와 맥컬러그 목사가 기도와 안수로 장로, 집사, [그리고] 여집사들을 구별하였다.' 몇 년 후, 같은 교회에서 W. C. 화잇은 교직들의 안수식을 집례했다. 1900년 1월 7일 애쉬필드 교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전의 안수일 임원들은 금년도에 추천되어 수락되었고, 오늘 화잇 장로는 장로들, 집사, 여집사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 재림 교회 리뷰, 1986년 1월 16일.' ("여성 안수에 관한 전시물", 1990년 대총회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화이트 에스테이트 직원이 작성).

제리 문은 엘렌 화잇의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 호소문에 대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왔다. 이 글이 쓰인 직후, 당시 엘렌 화잇이 일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호주 시드니의 애쉬필드 교회에서 새로 선출된 제직들을 위한 안수식이 열렸다. "호주 합회의 콜리스 목사와 맥컬러그 목사는 기도와 안수로 장로, 집사들, 그리고 여집사들을 구별했다." (1895년 8월 10일, 호주 시드니 애쉬필드 후기성도교회 회의록, A. 패트릭이 인용; DG 249 참조). 세 직분 모두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년 후(1900년) 같은 교회의 또 다른 기록에는 두 명의 장로, 한 명의 남집사, 두 명의 여집사가 안수받은 기록이 있다. 이번에는 집례 목사가 W. C. 화잇이었는데, 그의 일기가 교회 기록을 뒷받침한다(패트릭 참조). 세 번째 예는 1916년 초에 당시 태평양 연합회장이었던 E. E. 앤드로스가 여성 안수식을 집례하면서 그는 엘렌 화잇의 1895년 리뷰 기사(DG 253-255)를 자신의 집례 당위성으로 인용하였다. 엘렌 화잇의 1895년 기사의 내부 증거와 당시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 즉 애쉬필드 교회, 그녀의 아들 화잇(W. C. White), 엠스헤이븐 시절의 태평양 연합회장인 앤드로스(E. E. Andross)의 답변은 모두 엘렌 화잇이 당시 지방 교회에서 집사 직분과 관련된 역할에 여성 안수를 승인했음을 확인시켜 준다"(Jerry Moon, "Ellen White, 안수 그리고 권위" [안수 신학 연구위원회, 2013년 7월], 33 쪽)라고 했습니다.

22 G. C. 테니,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한 여성의 관계", RH, 1892년 5월 24일, 328-329 쪽.

23 "노동자는 고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원고 43a, 1898, 5MR 324-327.

24 엘렌 지 화잇, 존슨 형제에게, 1879년(편지 33), 19MR 56.

25 4T 390.

26 6T 322.

27 FCE, 117-118(강조 표시 추가).

28 Ev 546(강조 표시 추가).

29 "목사와 백성의 의무," RH, 1895년 7월 9일(강조 표시 추가).

30 재림교회 역사의 아주 초기부터 이 운동의 선구자들은 소수의 재림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혼란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우려를 느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역 신자들을 감독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식을 집행하기 위해 장로들을 따로 세웠던 신약의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장래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기도와 안수로 그들을 구별했다. 안수의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완전한 증거"였다. 신자 그룹은 그들을 안수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의

승인을 보여줄 것"(EW, 100-101)이었다. 이 초기 재림교회의 순회 설교자들의 안수는 교회를 대표하여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성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에서 엘렌 화잇은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의식을 구별되고 위임된 것으로 언급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그녀가 이 단어들과 개념들을 동의어로 사용했음을 나타낸다.

³¹ "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발언," 원고 75, 1896 년(강조 표시 추가).

³² 예: TDNT, 6:673; NIDNTT, 1:157. "출처"라는 의미는 그리스 문헌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 필립 B. 페인,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참고한다: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적, 신학적 연구*(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Zondervan, 2009), 117-137 참조. 그는 “근원”을 의미하는 *케팔레*를 알리기 위해 가장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그리스어 사전 목록을 제공한다(123, 각주 35).

³³ ST, 1890 년 1 월 27 일.